

인류세(人類世)에서 아시아 연구의 의제

프라센짓 두아라(Prasenjit Duara)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다. 나는 1995년에 『국가로부터 역사 구하기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을 쓰고 10년도 지나기 전에 나는 최소 100여 년 정도는 아주 긴밀했던 역사와 민족국가 사이의 분리를 서구 학계에서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는 적어도 이번 세기의 초반에는 민족국가가 국가적 역사 기록에 거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구의 선진 경제권은 세계화에 있어서 나머지 개발도상 경제권과는 분명 다른 시점에 있지만, 대체로 민족국가는 마치 국가 정체성 구축과 발전의 기획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세계화, 민영화 그리고 수익의 창출이라는 신자유주의 기획과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 아시아 연구들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¹를 논의하기 전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 주최로 지난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린 국제회의의 “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의 두아라 교수 발제 강연을 번역한 것이다.

¹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는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 파울 크루첸(Paul Crutzen, 1933~)이 제안한 용어로, 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의미한다. 마지막 빙하기였던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가리키는 홀로세(Holocene)에서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구분하는 것으로,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 전반에 가져온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다(역자 주).

번역: 김인섭/한국번역가협회

감수·교정: 이성민/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에 인문학의 변화하는 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변화하는 위상

인문학과 사회과학(이하 인문사회과학)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 1990년대 후반까지의 커다란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근대 훔볼트적인 교육 개념이 탄생한 유럽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훔볼트의 철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합하고, 연구와 학습의 자유를 제도화하며, 인문주의와 개인적인 가치를 진작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러한 개념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 모델을 계발하고자 했던 민족국가에게, 특히 이러한 것들을 대학 수준의 인문 교육과 연관시켰던 미국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교육은 연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연구를 위한 자금은 점점 더 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개별 연구자는 자연과학 모델에 기반한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기준들은 장기적인 영향력을 지닌 인문사회과학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소 덜 극적이긴 해도, 이런 경향 중 많은 부분이 미국과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²

이 글은 이러한 인문사회과학의 변화하는 위상과 역할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서로 다른 인문사회과학 학과들은 각자의 다양한 필요와 역할이 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들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의 부재가 이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심지어 절망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변화하는 지구적인 맥락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취하면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새로운 연구 모델이 우리의 학문적인 관행과 방법에 가져다 줄 비용과 이익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² 발전에 있어서 경쟁력의 중요성이 변화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국가라는 단위는 더 이상 경쟁력과 발전의 핵심적인 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적 연구나 국가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국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연구와 교육은 점점 국가와 세계에서 특정 단위의 경쟁력 요구에 종속된다.

모델은 생명의 도덕적, 윤리적, 정서적, (시각적인 것을 포함한) 심미적 그리고 비판적인 차원을 포함하여 인류와 지구의 발전에 대해 더욱 충분한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우리는 현상을 탐구하는 질적, 수사적 그리고 해석적인 방식들을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방식과 함께 통합해낼 수 있을까? 현재의 연구 기금 체계의 지원 주기는 우리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저술에 대한 더 오랜 몰두를 참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연구 방법들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과 데이터 시각화 기술들이 열어주는 새로운 기회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하게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의 학문과 방법의 위치를 찾아 내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우리의 모든 연구를 반드시 초국가적이거나 세계적인 공간으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화의 영향이 연구를 위한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민족(nation)을 다시 생각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지역적’인 것이란, 되돌아보건대 많은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세계적 규모에서의 힘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인 개념화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학문적 지식 생산이 답변해야 할 새로운 권력의 지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연구에서 어느 정도로 윤리적 책임을 견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사례를 ‘집단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윤리의 문제는 학문적 탐구 모델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 하나다. 흠볼트식 모델은 개인주의적이고 인문주의적인 가치들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장려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가치들이 대부분 국가적이거나 국가 이익에 대응하는 어떤 목표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율성은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지배적인 모델로는 적절하게 파악될 수 없는 인구 부문과 사회 부문 그리고 경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마르샤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인문주의 지식이란 비록 우리가 보았던 나치의 사회과학이나 미학과 같은 예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동정과 공감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인문주의적 지식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개입 양식들의 효과와 영향을 포함하여(이전 시기의 종교로부터 그 역할을 이어받았음이 분명한) 삶에 대해 보다 총체적인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이러한 총체적인 이해가 평가적 의사결정의 가장 훌륭한 기초가 된다고 믿는다. 유동적인 시민권이나 다문화주의의 성장과 같이 인문주의적인 교육을 촉진해야 할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는 한, 인류의 좀 더 폭넓은 조건과 필요들에 대한 숙고의 능력이야말로 인문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학자와 해석적인 사회과학자들은 현실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전문가나 응용 학문과 같은 ‘엄밀한 과학들’과 협력하기 위해 새로운 기반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과학은 변화하는 세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연구 의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들을 개발해야 한다. 아마도 ‘주권과 지속성’이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이다. 특히 기후 변화, 인구, 질병과 금융의 이동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담당할 기관들은 여전히 대부분 국가 단위에 속해 있다. 현대화 이론이 발전의 문제들을 민족국가 시대의 전 세계적인 의제로 개발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공유된 주권의 시대와 이에 대한 윤리적 헌신의 문제들, 그리고 정체성을 계발하는 기술들과, 지속가능성과 같은 보다 큰 목표로의 헌신에 다가갈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들과 방법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아시아와 지속가능한 현대성의 패러다임

전후 시기 미국에서 출현한 아시아 연구의 기존 패러다임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 보자. 연구의 초점은 아시아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설과 현대화를 규범적인 목표로 삼았던 ‘국가 현대화’ 패러다임에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현실은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화와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계화는 지역적 구성들을 동반하는 것이다. 냉전 이후로 전 세계에 걸쳐서 유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이제는 아시아와 같은 ‘지역들’이 강하게 출현한 것이다.

최근 수십 년간, 특히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더불어 통합된 공급 체인망이 출

현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무역과 문화적 연결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중국, 일본, 대만, 홍콩과 인도를 포함하는 16개 아시아 국가들의 통합도 진전되고 있다. 1998년 이전에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은 33%였는데, 1998년으로부터 10년 후에 52%로 상승했고 현재는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세안은 중요한 지역 블록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세계 강국들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의 핵심 원칙들로 끌어들었다. 아세안의 목표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규범적인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인 평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어떠한 약점이 있더라도, 이들은 강대국들에게 난감한 정책과 상업 외교를 통해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으로 FTA를 비롯한 여러 협정(ASEAN+3, EAS, APEC, ARF)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얻고자 했다. 최근 중국의 일방주의 경향이 문제 요소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협정들은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 아세안은 지역적 번영과 평화에 대한 헌신을 만들어내는 개방적이고 총괄적인 지역주의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초민족국가에 가까운 유럽연합(EU)보다는 훨씬 더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차원 및 권력의 분리로 인해 어느 정도는 해양 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와 닮아 있다.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새로운 연결들은 네트워크 지역(networked region)의 대표적인 사례다. 역사적으로 아시아는 네트워크 지역이었다. 처음에는 육상, 이후에는 해상 비단길로 서로 연결되었다. 물론 이러한 연결을 지원한 제국도 있었고 파괴한 제국도 있었다. 그러나 교역과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대한 문명적, 기술적 연결들이 형성되고 그 실천이 확산되었다. 나는 이러한 네트워크 모델은 경제, 문화 심지어 정치적인 수준에서 현대 공간의 영토적 균질화를 전제로 하는 다른 지역 모델들과 다르다는 점을 제안한다. 유럽의 경우 초국가적 유형의 지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현대적인 지역의 네트워크 모델은 중복되고 교차하는 네트워크들과 중심지, 그리고 배후지로 구성되어 있다. 놀랍게도 오늘날 육로와 해상의 길은 시진핑(習

近平)도 환기시킨 바 있듯이 마치 비단길의 아이디어와 유사하다. 네트워크들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일치하거나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비록 해양의 네트워크 지역에서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초국가적 기구들, NGO, 무역, 노동 및 문화 네트워크들이 종종 서로 겹쳐 있더라도, 국가 간 네트워크에서는 겹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네트워크 지역이 출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의 발전을 위한 명령들도 존재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힘보다도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인류세에 살고 있다. 그것이 테러리즘이든,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경제적 유행 또는 환경 위기에 의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가적 이익을 넘어서야만 한다. 집단적인 국가 협정이든 초국가적 조직을 통해서든 기존의 주권에 대한 게임의 규칙은 변경되어야만 한다.

지역들은 또한 월경(越境)의 문제, 특히 세계적 자본주의와 관련된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세계와 국가의 중간 단계를 대표한다. 지역들은 주권이나 반(半)주권 기구들의 보다 작은 집합체들이 이러한 국가적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을 허락한다. 지역 기구들은 지역 공공재나 '공통재'의 공통되고 연결된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 관리 문제다.

히말라야 산맥은 열 개 주요 아시아 강의 분기점이다. 란창과 메콩 강은 25개가 넘는 댐을 갖고 있고, 여러 나라에 걸쳐 더 많은 댐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 강에서 수력 발전을 하겠다는 갈망은 6천만 명 사람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누/살윈 강과 얄룽창포/브라마푸트라 강의 경우도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척박한 북중국으로의 북-남 물 옮기기 프로젝트는 남아시아로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물의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다른 나라로의 물 흐름의 영향을 관찰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권 국가들 간의 상호 협조와 투명성 창출이 필요한 것이다.

III. 연구 프로젝트

따라서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지속 가능한 현대성’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더 자세한 제안에 앞서, 이러한 접근이 아시아 연구뿐만 아니라 바라건대 정책과 의사결정기구에서도 주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 현대화의 패러다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학문과 세계를 지배해 왔다. 즉 학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발휘해온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은 다양한 근원들로부터 출현해야 하며, 특히 전 세계에 걸쳐 부상하는 새로운 시민 사회와 사회적으로 매개된 네트워크로부터 출현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주의자들도 이 점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사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학문적 목표에서 두 가지 변화의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가는 고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많은 자원과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역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지속 가능성이란 우리가 GDP의 성장이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고민하는 것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개발 지수조차도 환경과 자연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소장으로 있는 국립 싱가포르대학교의 아시아연구소(ARI: Asia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연구 클러스터 내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기금을 받는 팀으로서 그리고 프로젝트로서) 연구를 실행한다. 이러한 클러스터들에는 무엇보다 *종교와 세계화, 아시아의 도시화, 아시아의 이주, 과학, 기술과 사회, 변화하는 가족과 문화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국가와 학문을 넘나드는 연결을 이해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연구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다양한 집단 내외의 연구자들의 활동들을 조정할 수 있는 메타 클러스터를 창설했다. 이 메타 클러스터를 *아시아 연결의 역사사회학*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연결’이라는 용어를 아시아 사회들 내부의 연결뿐만 아니라 아시아와의 연결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시아의 연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몇 가지 새로운 주제들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아시아 내부와 이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해결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후학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금융(AGF)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고위 레벨 자문 그룹의 니시무라 무츠요시는 기후 변화가 “자연은 미국과 중국, 일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역사학과 사회과학, 인문학에서 ‘방법론적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던 배타주의를 무력화시키면서 발전시켜온 방법론의 역할은 세계가 오랫동안 - 잭 구디(Jack Goody)에 따르면 청동기시대로부터 - 상호 의존해 왔으며 순환적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족 문화와 정체성의 중요함은 완전히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를 만들고 실제로 형성하는 힘이 순환적,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주권의 개념은 결코 배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과 세계의 서로 다른 기구 간에 공유되어야만 한다.

ARI에서 개발되고 있는 또 하나의 관련된 주제는 재난 관리다. 2011년 봄에 쓰나미가 후쿠시마를 강타했을 때, 태국에서도 홍수가 참사를 일으켰다. 대부분의 다른 재난들도 그렇듯이 두 재난의 결과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다. 후쿠시마가 어떻게 점점 더 심각한 재난들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태국의 홍수는 일곱 개의 대형 공업단지에 손상을 입힌 결과 전 세계 공급 체인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 미화로 457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것은 가액기준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열 번째의 보험 손실이었고 태국 연간 대물 보험료의 20배를 넘어서는 것이었다.³ 울리히 벡(Ulrich Beck)에 따르면 일본과 같이 발달된 사회에서의 2차적 또는 성찰적 현대화란 이전 현대화 단계의 뜻하지 않았던 결과들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이들은 개발 도상국들에서는 자연 재난과 산업화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사고와 자연 재난은 지역과 세계로 서로 영향을 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³ http://www.swissre.com/reinsurance/insurers/property_specialty/Achieving_a_viable_approach_to_flood_insurance_in_Thailand_anz.html (검색일: 2014. 3. 1).

이지만, 거대 도시의 개발이 억제되지 않는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적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역사, 윤리, 지역적 지식, 거버넌스와 사회 자본 등의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들도 필요하다.

인문학은 우리의 연구들이 얼마나 고전이나 원전에 기초하고 있든지 간에, 다른 모든 형태의 지식들이 그러하듯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본질적으로 현대화 이론에 의해 움직여 왔다. 이러한 발전, 국가 건설, 민족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같이 연관된 생각들을 포함하는 현대화 이론에서 ‘지속 가능한 현대성’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우리의 학문들을 어떻게 다시 생각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투고일: 2014년 4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13일

